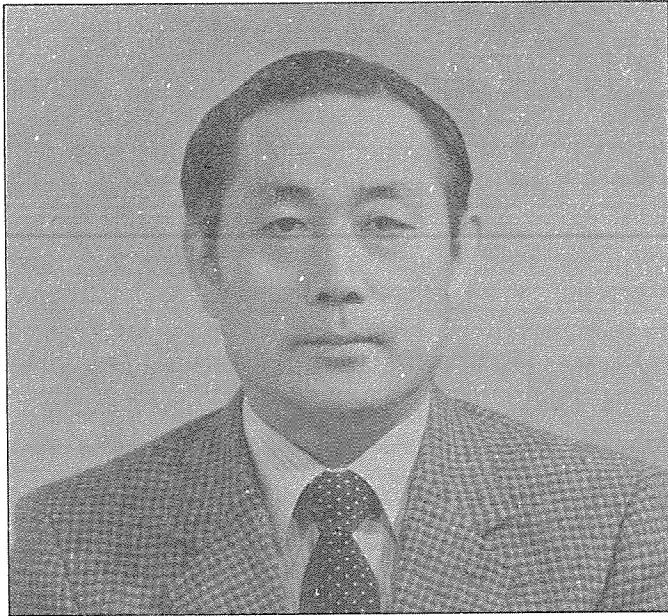


“基礎微生物學 도입·발전의 디딤돌”



仁叢 洪淳佑先生 (1927~1988)

仁叢 洪淳佑先生은 1927년 10월 1일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에서 출생하였다.

해방직후인 1946년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생물학과에 입학하여 제3회로 졸업하였으며, 동대학원에서 이학석사 및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해방 및 혼란기에 학자의 생활이 극빈하였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자의 길에 매진하여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고려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미국 아이오와 및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에 연구교원교수를 거쳐 1960년 부터 모교인 서울대학교 식물학과 교수로 후학 양성 및 연구에 진력했다. 1970년부터는 미생물학과를 신설하여 교수 및 학과장으로 봉직하였다.

仁叢先生은 1950~1960년대의 열악한 연구여건에서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할 수 있다.”면서 연구에 몰두하여 그 결과 주옥같은 170여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잡지에 발표하였으며 한국 균류도감을 비롯한 9권의 저서를 남겼다. 그 공로로 생물 분류학의 권위있는 상인 靑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생물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진 인재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선각자적 판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70년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내에 미생물학과를 창설하여 오늘날 첨단과학의 한 분야로 발전시켰다.

이와 병행하여 국내 기초미생물학자의 학술토론장인 한국 미생물학회의 창립에 참여하였고, 동 학

회 이사,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회장, 기금 위원장등을 고루 역임하여 학회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실로 기초미생물학 도입의 디딤돌이요, 발전의 머릿돌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仁叢先生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문적으로 몰두함과 동시에 정부와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한국수질보존학회 초대 회장 및 한국자연보존협회의 이사, 부회장 및 생태분과위원장으로서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자연보호에 앞장서서 이루 해야될 수 없는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82년부터는 대한민국학술원의 정회원이 되었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유네스코 미생물학분야 네트워크 한국대표등을 지냈다. 이러한 학문적 업적과 공로가 인정되어 1983년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 받았고, 서거후 목련장이 추서되었다. 실로 仁叢先生이 참여하여 이룩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세세히 기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인암선생은 호탕한 성품에, 폭넓은 이해심, 넓은 생각으로 어느 한구석 구기데가 없는 실로 훌륭한 인격자이었다. 아무리 바쁜일이 있더라도 친구, 후학 제자의 일이라면 굶은 일이나 기쁜일이나 뉘뉘고 나서서 해결해 주고는 인자한 얼굴로 “잘됐지”하며 웃어주곤 하였다. 선생이 제자들의 가슴에 심어준 참되고, 부지런하고, 겸손한 어진(仁)씨는 성실히 開拓하여 각계 각층에서 훌륭한 열매를 맺어,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河 永 七

(서울대 自然大교수·微生物學科長)